

## 2018년 4월 정기목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8년 4월 22일 14:08 ~ 16:33

■ 장소 : 4층 식당

■ 목회운영위원

[당 회] 김명선, 신복희, 채운석

[제직회] 이동수

[신도회] 안정연(장여), 조재상(장남), 이정임(희여), 김진B(희남), 정경이(청여),  
설두복(청남), 손정아(희청), 조남원(청신), 함 슬(새청)

[부 서] 신동일(관리), 나현대(교우), 지재욱(교육), 윤영애(봉사),  
윤선주(사회), 홍태영(선교), 강일국(예배)(불참), 백종수(재정)(불참)

[권사회] 이종남(불참)

[목회실] 김희현, 조은화

### 가. 성원을 확인하다. (14:08)

24명의 위원 중 1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다

### 나.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선교부장 홍태영 교수) 이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서 절차상 지난번 회에서는 기록 서기로 설두복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 회의에서도 기록 서기를 설두복 집사님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설두복 집사님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목회운영위원 신앙고백을 하다.

### 라. 이전 회의록을 보고하고 채택하다.

의장 회의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회의록에 나오는 간략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매월 회의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출력해서 가지고 오니까 언제라도 이번 주 회의 중이라든지 추후에라도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 충분히 텔레그램방 또는 논의해서 회의록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회의록 주요내용 낭독) 3월 회의록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월 회의록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 마. 보고

### 1. 보고

(당회보고 추가보고사항(부지/건물 매각 약정서 일부 수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목회운영위원회는 약정서 13조, 14조의 수정에 대한 당회안을 받기로 하다.

설두복 당회 보고에 질문 있는데요. 1번 항에 김00 교우에 관한 내용이 권사회의  
어려운 교우돕기 내용과 같은 사람인가요?

조은화 같은 사람인데 권사회 지원이 끝났어요. 2~3년간 도와주다가 지원이 끊났  
어요. 그 지원이 끊긴 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교회에서...

설두복 같은 사람인거죠?

신복희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설두복 대상은 같은데 지원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설두복 3번 항에 대해서도 질문 있는데요. 29일 연석회의에 신도회 회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복희 전에 우리가 그 한 번 연석회의 했을 때도 각 신도회 회장들이랑 같이 했었  
거든요. 그래서 각 신도의 회장님들이 참석하시면 회원들 하고 소통할 때도  
그 상황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각 신도회 회장님들이 주축이 되니까  
요.

김진 혹시 연석회의 참가대상,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어떤 규정으로 결정하  
나요?

김희현 당회원들이 모여서,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거보다는 교회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김진 그럼 당회에서 하여간 당회원들이 알아서 임의로 결정을 한거다 조직을.

김희현 그렇습니다.

신동일 공지사항 보니까 참가대상에 중재 모임도 들어가 있던데.

신복희 아 맞아요. (네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빠져 있는...) 중재 모임이 여  
기 빠져있는데 중재 모임이 모두 설명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참관이 가능하니까요, 굳이 이것을 규제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두복 청남신도회에서는 당회보고 내용에 대해 채팅방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의는 없었지만 제가 파악하는 주요 내용은 이렇습  
니다. 먼저 일정 문제인데요. 각신도회 회장을 회의 참석자로 한 게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지금설명하신 것처럼, 신도회 회원의  
의견을 모을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조직 운용의 문제입니  
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의견을 모을 공식 기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자 할 때는 기존 기구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의사를 모으는 기구로 목운위와 제직회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공식 기구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은 매우 조심히 접근해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석회의를 여는 배경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먼저 제기한 두 가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면 문제해결보다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당회에서 이런 부분을 숙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복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리 각 신도회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건일지 같은 건 몇 주 전에 배포가 되었고요. 오늘을 거쳐서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들이 대부분 수렴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부족하다면 연석회의 다음에라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재욱 연석회의 일정을 좀 뒤로 미룰 수는 있나요? 저희도 늦게 올라 온 이유가 설명해 있다가 왔거든요. 무슨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겹치다 보니까...

신복희 사실 연석회의라고 하는 게 꼭 자기 신도회의 의견을 주장한다가 아니라 각 지금 신도회라든지 원로 장로님 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의사는, 우리가 들어보고 당회에서 또다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재욱 그런데 설명회에서 그 이야기를 이현우 장로님께서 저희 청녀설명회에 들어 오셨거든요. 공동의회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복희 그거는 공동의회를 간다라는 것을 못 박아 둔 건 아니고요. 연석회의나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당회에서 또 한번 논의를 하고 꼭 공동의회를 간다 그러면 가야죠. 그렇지만 그거를 픽스 해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진 그래서 이연석회의 목적, 목표가 뭔지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연속 회의가 끝나면 무엇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오픈해서 그냥 의견수렴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신동일 나와 있는데요. ‘절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게 어떤 절차를 말하는지)

김희현 작년 말에 사과를 하면서 논란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걸 마무리 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적인 여건이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순 없으니까 절차적 마무리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절차적 마무리를 하겠

다는 것에 대한 방안에 합의 역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이태환 장로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씀하셨죠. 그거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께서는 직접 빠른 시일 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해 달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개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당회에서는 그것은 늘 고려에 왔던 바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요청을 듣는 거 자체는. 그러나 당회가 마지막으로 또 고민을 했던 것은 지난번에 과정 자체가 주어진 교훈인데 하나의 결정을 하고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 교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쑥 제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해결에 출구가 되기보단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도 판단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적인 마무리 방식조차도 교우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주목적 이었고요. 또 한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회에서 원래는 교우들에게 전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갖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구성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오늘 했듯이 사건일지를 만든 팀에서 각 신도회 별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핵심적인으로 참여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이태환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당사자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이장로님께서도 공동 의회 시간에 그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기가 충분치 않고 적절치 못한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교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토론을 통하여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이제는 조금 교회적인 넓은 범위에서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회로서는 고충이 있죠. 당회가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데서 오는 부담감 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결정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이 저희는 청녀에서 설명회를 하다가 도중에 들어왔는데, 사실 설명회가 팩트만 체크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팩트체크 하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설명회 취지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막 올라 올 때도 설명회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제 모든 히스토리에 기준을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교우들이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런 몰랐던 것도 알아야 되고, 현재 2014년 이후에 교우들이 갖고있는 과거에 많은 히스

토리들을 모르고 팩트만 현재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그 이전에 이태환 장로님의 많은 공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회 때 공감하고 이제는 설명회를 하고 팩트를 전달하고 이차원이 아니라, 이제 좀 모으자. 저희도 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청녀에서도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자.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신도회 별로 뻗은 안 일수도 있겠고, 그게 사퇴일수도 있겠고, 당장 복귀 일 수도 있고, 또는 봉사 후 복귀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신도회 별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신도회 별로 대안을 갖고 오는 게 낫겠다. 신도회 별로 대안을 갖고 와서 대안이 하나로 모아지면 바로 공동으로 가서 투표에 붙이면 되겠지만, 대안이 너무 중구 난방하다 그러면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안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설명회를 진행하자고 했다는 건, ‘너네들 알아라.’가 아니잖아요.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대안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신도회 별로 하나의 안 정도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안을 공동의 붙이기 전에 만약에 뭐 정리 한다든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연석회의를 또 해서 또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또 그 과정은 너무 그런 거 아닐까...

신복회 연석회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태환 장로가 참석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태환 장로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말 못한 심경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석회의를 한 번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도회 별로 대안을 내고 의견 하거나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연석회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를 다시 또 미루거나 하는 거 보다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태환 장로님이나 당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이태환 장로님이 자기 심경의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신도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태환장로님 성격이 막 자기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정경이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참가대상이 당회원, 협동장로, 초청목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관련자들만 모여 있다면, 저는 제 객관적으로 이런 분들만 모여 있다면, 또다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다른 교우들이 생각할 때는 또 거기가서 하소연 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공유가 안되고, 저는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미 설명회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좀전에 저희도 이현우 장로님, 김지수 집사님 들어오셨지만 무한한 애정을 기반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지, 단지 팩트만 전달 한 건 아니고, 14년 이전에 그분의 열정과 이후에 현재 교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들에 지적.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회 들어와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공감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태환 장로님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한다면 저는 또 다시 우려가 되는 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또 논란이 되고, 또 사람들의 반감이 되

고, 그런 시선에 연석회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이제는 좀 모아지고 대안이 마련되고, 정리가 잘 되고, 그 분에게나 교회에게나 다 서로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분란의 소지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신복희 우려는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자리가 한 두주 지난 다음에 무슨 대안을 딱 마련해 가지고 온다면 그것도 또 하나 굉장히 복잡한 ...

신동일 참가대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교우들이 계시는데, 일단 목적이야 뭐 절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라고 같음할 수 있다라도, 회의에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희 진행방식을 정확하게 논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희 공감대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성 발언을 자제한다,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몇 가지는 이야기가 됐었죠. 정확하게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한다는 아니고.

신동일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일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동회를 할 것이냐? 무슨 당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자리에서 이태환 장로가 와서 자기 심경을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괄호 치고 향린교우 누구나 다 참관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관해서 중간에 발언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건지, 참관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결할 게 있다면 의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신복희 그런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이런 절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해 주면 당회에서,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 사항은 논의를 안 했고 전에 연석회의 있듯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 하실 분이 이태환 장로님이면 이태환 장로님이, 아니면 다른 분이면 다른 분이 대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세부사항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재옥 지난번 연석회의는 어린이부실에서 ... 장소도 이렇게 되면 본당에서 진행이 되나요?

신복희 네, 많이 참석 하신다면 본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지재옥 그럼 만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알아 봐야 하는 거네요?

신복희 맞습니다.

김진 지금 이게 회의에 대한 타이틀이 연석회의라는 타이틀인데, 지금 갑자기 여기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 툭 튀어 나왔는데, 이태환 장로님이 본인의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신복희 그거는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김진 그니까 그런 얘기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현재까지 행위에 대해 합리적 주장을 할 거 같은데 분명히,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우

리가 자료를 수집 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하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고,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에 그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한 목적이 뭐니까? 우리의 실제 내용,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 예를 들어서 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에 의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개인 나와 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정리한 게, 이태환 장로 건으로 해가지고 정리된 내용 자료는 완전히 그냥 거의 무시되고, 연석회의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계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복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나현대 이 광고를 신도회 방에서 전달을 받았을 때, 맨 밑에 .....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일 때 개인적인 의견은 '아 여러 가지 의견을 기존에 펼쳐진 문제들을 여기 다시 아우러져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고, 이 자리도 그런 어떤 아우름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 그 자리가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그 행사나 모임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거를 불신해서 계속해서 불신이 돼서 계속 말이 되겠지만, 내가 이정도에서는 이걸 덮고 우리가 서로 양보 하겠다, 서로 받아들이겠다,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으면 이것을 해서 또 마무리 짓고 또 마무리 짓고 해서 클로징을 하기 위해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이렇게 마무리 하시기를 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자 하는 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좀 다른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당회의 노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환한 모습에 어떤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하는 거죠. 여기 또 다시 약간의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간은 좀 그거를 좀 이렇게 하고서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좀 어떻게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신동일 물론 이게 좋은 취지로 다 하면 좋은데, 그동안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2년

간 끌어 온 거잖습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되기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도 공동의회 소집, 이건 굉장히, 찬성과 반대 다 불명예스러운 거를 감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설명회 자료들을 청납이 요구를 한 거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결 하지 말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다시 마무리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 이태환 장로께서 와서 또 설명을 하면 다시 (일 부분이겠죠. 전부는 아닐거라고...) 객관적이 아니라 감정으로 끌고 가게 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참관을 하시는 분들, 감정적으로 누가 발언을 하실 것이 뻔하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감정으로 더 끌고 가게되는 것을 (아니 원래..)우려 하는 거예요.

신복희 아니 원래 이 연석회의, 처음에 간담회라고 말했는데 연석회의로 되어 있는 데요. 간담회를 요청한 게 이태환 장로님이 아닙니다. (네 공동의회를...) 이태환 장로님이 공동의회를 빨리 열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당사자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나를 내 치던지 오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당회에 와서 말씀하셨을 때 당회에서 교육지책으로 이런 간담회를 중간에 해 보자 한 거 고요. 이태환 장로님도 여기 참석해서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참석에 여부도 상당히 고민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집사님들도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신동일 의구심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데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복희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대책위원회에 대한 활동은 사건일지 같은 걸로 정확히 판결이 나잖아요. 언제 어디를 했고 뭐를 했고 있지만 이태환 장로님의 문제는 사실 사건일지만 봐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개인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본인의 마음을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은 이제 교우 각자의 마음이 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태환 장로의 사건일 지나 설명회를 충분히 보고 OK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벗어난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재욱 저는 이걸 받아들일 때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석회를 하든 뭐한든. 그런데 불편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설명회도 그렇고 ....설명회도 그렇고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 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되는 게 불편 했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현우 장로님이 공동의회에서 장로 복귀를 찬반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찬성을, 만약에 저는 반대표를 던져도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찬성을

하는 쪽도 괴로울 거 같고. 왜냐면 배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 대안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 보세요...

김희현 저는 이런 논의들이 이런 선의들이 모이기를 기대하고요. 당회로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 합리적 지점들을 얘기하는데 합리적 지점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합리성 안에서만 합리적이지 다른 데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설명회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특히 대책위원회 건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 하겠구나 해서 어떤 면에선 최소화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또 요구해 나가는 뭐랄까요, 지점에서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회 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신도회가 있는 방면 전혀 할 수 없는 곳이 있기도 하고. 당회가 스스로 신도회 별로 이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 자체가, 당회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당회가 무능력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차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를 가졌는데 다음 주에 한다면 어떻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느냐 하는 말씀이 아 그 점이 있었구나 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도 당회에서 한 달 넘도록 이거 빨리 좀 해결 해 달라고 매 주 오는 압박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아니다 지금은 사건일지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해 왔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도를 찍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당회 역시도 안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을 주셨을 때,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답변으로 서는 불충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을 거 같고요. 핵심은 이태환 장로님 건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해명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마무리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아팠었던 것들을 당회원들만 해왔던 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함께 집단 지혜를 만들 거냐. 거기에서 당회에 그런 고충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선의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각도들이 있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채운석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과정에 이런 기구를 구성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누군가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내 공식적 제 기구가 있고, 그 기구들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데 이 회의록에 나와 있지만 재개발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고, 공동의회 소집을 당사자인 이태환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안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요구 하셨습니다. 그 요구와 함께 당회가 이 문제를 느리게 끌고 가는 데 대한 자기 안타까움을 피력 하셨습니다.

다. 당회 입장에서는 저도 당회원 중에 한 명으로서 당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공동의회로 바로 가지고 가졌을 때 겪어야 될 교회의 아픔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떤 그 방식 외의 다른 방식들을 가져 보자라는 것으로 계속 진행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화된 자료집을 좀 준비 해보자. 팩트 중심이어서 이 팩트를 가지고 논쟁이 안 되는 객관화된 자료집을 준비해 보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적 설명회 자료집 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자료집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각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들 때문에 사실은 어느 순간 만들자고 그래서 바로 합의되지 않았습시다. 계속 긴 시간동안 여기에 다른 생각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다른 것들이 다른 팩트를 가지고 있으면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 왔습시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집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개인은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가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회에 이런 요청을, 당회에 본인이 했던 기준에 약속을 얹고서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 본인의 기준 약속은 당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당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당회에 들어오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그리고 당회에 들어와서 향후에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조속히 이것을 해결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회의 관점에서는 당회 내에서도 당회원 사이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한 몇 사람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공동의회를 반대 해 왔습시다. 한데 당사자가 들어와서 내가 고통스럽다. 그리고 조속히 공동의회를 소집 해 달라는 요청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습시다. 문제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공동의회 의결 자체를 모두가 존중할 것이냐 라는 것이 대단히 큰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식은 어쩌면 당회원, 이 자리에 계신 목운위원 연석회의, 또는 당회원과 목운위원이 다 들어가 있는 제직회에서 논의를 해 본달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이고 합의한, 공개적이고 토론에서 합의한, 우리가 여기에서 난 결정을 서로 존중하고 따라갑시다. 이런 의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많은 다수가 논의과정에서 더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원로들을, 협동 장로님들이나 초청 목사들, 원로들을 모시고 원로들의 자문도 좀 듣자. 원로들께서 발언할 기회도 좀 드리고, 각 신도회 대표들이 들어오면 신도회 안에 총체적으로 모아진 결론들은 있습니다. 오늘 회남도 긴 시간 이야기 했지만, 회남에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라고 회남 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좀 배려하는 목소리로, 서로가 크게 한번 논의해보자. 그리고 만약 그 길이 공동의회든,

아니면 다른 길이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합의된 것은 서로가 존중하자. 이게 원로부터 신도회장까지, 당회원들까지 전체가 합의하면 교회가 이후에 겪어가는 어떤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서로의 기존 합의가 있으니까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아픔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저도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당회원들 내부에서 긴 토론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을 동의 했고 앞으로는 당회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가능한 공식적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성을 따지는 이런 회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를 하자, 이런 논의들이 포함된 의견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이게 연석회의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바라보는 입장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끼리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도 문제 해결이 안 나는데 연석회의에 보면, 우리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본인 얘기를 들어 가지고 뭐래도 어드바이스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더 분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노력했던 이 조직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제 3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들어본들, 그분들이 여기서 아픔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도 큰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넓혀 봤자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더 많은 조직을 끌어들여가지고 해도 그게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석회의라는 게 우리 조직내에서 움직이고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조직에서 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 3의 인물들, 혹은 현재 잘 나오시지도 않고 이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조합을 이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정경이 좀 더 추가하면,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중이긴 한데 저희가 나오기 직전까지 청년의 기조는 그거였어요. 설명회를 통해서 팩트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팩트를 아는 차원이 아니다. 이제는 그 전제하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마무리하자. 마무리의 원칙은 2014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새교우들이 느끼는 어떤 민주적이지 않은,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오래 교회에서 이태환 장로님이랑 모든 과정을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다 지켜봤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을 둘 다 다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와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태환 장로님의 남은 임기 중에

2020년 초반까지 계시다면, 남은 임기 중에 받은 일반 평신도로서 어떤 사회 선교든 어느 부서든 봉사하고 일정 기간 약속된 협의된 시점에 명예롭게 복귀하고, 그 분의 명예도 지켜 드리고 또 많은 교우들이 향린에서 느꼈던 민주적이지 않고 부당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들은 예전에 그분을 신뢰하고 너무 애정이 많아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팩트만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 조금은 사실은 성숙하지 못 했던 모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켜내야 된다면, 고거는 한발 양보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민주적인 절차, 향린의 정신도 지켜내면서 그분도 명예롭게 해 드릴 수 있는, 저희도 더 이상 그분이 공동의회에 나와서 상처받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더 이상 그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그냥 감싸기는 향린이 너무 무너져 내려 버리는, 절차도 없고, 민주적인 것도 없고, 원칙도 없고, 둘 다 살려낼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얘기하다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회에서 신도회들을 믿어 줬으면 좋겠다. 백날 말해봐야 답이 없을 거 같다 라는 것보다는, 신도회 별로 설명회에 팩트가 나오니까 설명회 처음이니까, 설명회 듣고 그 안에서 각 신도회 별로 좀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하나로 모아 달라. 그걸 가지고 당회든, 그게 연석회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석자 분들이 좀 그래서, 그게 당회든 아니면 목운위에 각신도회 대표들이 들어오고 부서 대표들이 오시니까, 저도 아까 예상을 못했는데, 신도회가 되는 데도 있고 신도회 참석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여기 목운위는 부서 대표들도 계시고, 그게 황으로든 종으로든 신도회든 부서모임이든 의견들을 부서별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신도회도 다 갖고 와서 하나로 여기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최종안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안이 공동의회에 가는 게 좋을지 목운위에서 하는 게 좋을지 신도회 대표 들이니까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지만 많은 교우들이 지쳐있고 정말 이제는 교회일에 관심도 갖고 싶지 않고 저희도 안타까워요 청녀에 많은 신입 교우들도 이제는 불편해요 이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설명회 한다 그러면 오기도 뭐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다들 너무 지쳐 있어서 저희도 서로간 뭔가 해피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좁혀가는 거가 됐으면 좋겠다가 오늘 설명회 저희는 목적이었어요. 팩트를 알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다른 신도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걸 모아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걸 기반으로 목운위가 됐든 연석회의가 됐든 해서 당회가 공동의회를 잡아주시든 절차를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재욱 대화를 청녀에서 해 본 거예요.

정경이 청녀는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신복회 나쁘지 않은 의견입니다.

정경이 근데 그것도 저희만에 생각이요 다른 부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

로 좀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지재옥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게 지금 순서일 거 잤다는 게...

김희현 저희도 당회에서도 사실 그런 지혜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거 안 만들었겠죠. 무작정 당회 혼자 공동의회 하는 리스크만 줄였버리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고 교우들이 모여서 애통해 왔으니까 그런 고통속에서 만들어진 지혜들을 나누다 보면 뭔가 알고 있었지만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당회에서도 사실 절차적으로 본 다면은 이날 공동의회 부의는 당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회 안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방향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스텝이 조금 더 남았다면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청녀와 같은 그런 선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 건에 대한 논의 충분히 진행되었습니까? 혹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그런데 혹시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될 내용 있으시면 받고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이 거를 결의 하실 겁니까?

의장 결의하지 않습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네.

이동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맞는 말씀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피부로 와 닿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교인들이 뽑아 가지고 이렇게 시무 하시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애너지 하고 많은 부분들을 애 쓰시는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당회원분들께서 고민 고민 하시고 교회 내막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아시고, 그 고충이 제일 많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러면 교회 갈등관련 연석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목운위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하는 게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참 많이 놀랜 부분이 참석 대상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향린교회 회원 교우는 참 관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중재모임, 사건일지 작성팀, 내용 잘 아시는 분들이고, 설명회 준비위원도 내용을 잘아시는 분이고, 신도의 회장님들, 그리고 초청목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늘 뜻을 전하시는 초청목사님들, 협동장로, 당회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협동장로들이 문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몇 몇 분이. 감성적으로 했을 때 감성적으로 했을 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게 당회원들이 그 고민 고민해서 결정한 이 내용들을 목운위에서 이 거를 의심의 눈동자로 바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아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 신뢰가 안 가 있고 믿음이 안 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잘 못 오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 가장 마음에 안타깝고

요. 저도 이번에 해석할 때는 그냥 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얘기를 듣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당회에서. 그래서 신도회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사건일지 팀이 작성해 갖고 설명을 하던 간에 다양하게 많이 사람들이 알아야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이게 공동의회로 곧바로 가서, 채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회 곧바로 가서 거기선 논의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처가 있을 게 뻔 하거든요. 그걸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수면아래 내리는 방법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뭘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의 생각들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자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바라 본다면. 이걸 누구를 두둔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예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또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게 목사님하고 당회원들 공유해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냥 지켜보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때 가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반성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협동장로로써 아 이게 교인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제가 한 가지, 지금 첫 번째는 연석회의를 한다면 이때 참석대상 말고 거기 참여할 수 있잖아요 교인이. (네) 그러면 참여 하시는 분들도 발언이 가능한 겁니까 발언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신복희 발언을 요청하면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김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우려 하는 건 우리가 단계적으로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그 현재까지 매듭을 지어 놓은 것을 또 회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 하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연석회의 한다고 그러면 참석자가 발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설두복 이동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지점이 저는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당회에 신뢰가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당회원들이 고충도 많고 많이 고생하시고 또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모두 다 인정 할 겁니다. 그래서 당회원 하라 그러면 서로 힘들어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면 목운위 구성원을 보면 부서, 당회, 목회실 대표자가 있고, 신도회 목운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부서목운위원은 대표자로서 성격이 강하고, 신도회목운위원은 대리자, 대의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회 목운위원으로서 신도회의견을 모으지 못했을 때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표결 할 때는 기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당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회는 우리가 신

임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의사를 충분히 내라 라고 하는 것일까. 너가 무슨 의견을 내든 우리가 신뢰하마 하는 것일까. 자기 편의가 있지만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당회는 대의기구이고, 당회원은 대의자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공적기구이고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공적임무수행을 한다는 건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회보고 3번 내용은 갑자기 특 튀어나온 거예요. 지난 번 사과발언이라는 행위도 갑자기 특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왜 우리가 알지도 못 했고,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우리에게 물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결정을 하지? 이 질문에는 당회에, 당회원에게 요구되어지는 공적기구로서 공개성, 대의자로서 교인들의 의사반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동수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틀렸다거나 그런 지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에 인식이 좀 다른 지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으로 당회보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안건 토론 도중 질의 답변하다.)

이동수 논의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인데요. 교우 친교의날 6/13일 무슨 의미죠?

조은화 향우실을 쓰는 계획이 없는 날을 교우친교의 날로 기입하고 있다.

신복회 5월 6일은 성평등위 내부 교육이 있습니다.

조은화 6일은 삭제하겠습니다.

## 바. 안건

의장 채팅방 설두복 위원이 제안한 토론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12월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공지한 ‘정관 개정 관련 계속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과 방안 마련’ 이구요. 두 번째는 심의 안건입니다. 당회에서 결의했던 향린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과 채원 마련을 선교부에서 제안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안건은 제가 목운위방에서 언급 했었는데요. 공식인 목운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토론 안건에 대해서 설두복 집사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1. 토론 안건

<2017년 12월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공지한 ‘정관 개정 관련 계속 논의

의 사항'에 대한 토론과 방안 마련>

설두복 작년 정관개정관련 공청회와 공동의회 과정에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목운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 이번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못한 아래의 의견들은 내년도 목회운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전문의 개정과 정관연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으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 2. 창립정신, 교회 갱신 선언과 같은 혁신 정신을 반영하는 정관의 전면 개정 3. 성평등위원회 또는 성관련 사고대응기구의 조직변경” 이렇게 교인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2018년 목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했으니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할 건지,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토론과 향후 일정을 잡는다든지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재옥 궁금한 게 있는데, 정관소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참여 하신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다루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원회가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서 다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김희현 소위원회가 12월 17일에 해소가 된 건가요, 계속 있는 건가요.

채운석 임기 만료되었습니다.

지재옥 그럼 다시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앓을 건지 그걸 결정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다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소위원회가 정리를 해서 해주면 진행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운석 지금 제기된 문제 외에 지난 연말 목운위 또는 금년 연초 목운위에서도 계속 그간 목운위원들의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 내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행세칙이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수첩에 정관만 나와있지 시행세칙이 없고 그래서 시행세칙과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하자. 그래서 지난달에도 우리 회의와 관련된 논의를 설두복 위원이 문제제기 하였고, 제반 회의와 관련된 규정, 제정과 관련된 규정,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을 좀 잡아 놔야지 된다고 사실 기존 목운위가 합의했습니다. 기존 목운위가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운위원장 쉼석 이런 게 같이 겹치면서, 그래서 논의할 때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장 채운석 장로님은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하던지 아니면 차기 회의에서 (.....)

지재옥 이 자리에서 이걸 결의해서...

채운석 토론하고 의견들만 모으면 됩니다.

의장 일단은 오늘 의결을 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토론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린 자료 참고하셔서 이 안에서 합의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셔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다든지, 결정을 하진 않을 거고요. 본 내용을 포함해서 정관 제정에 대한 그런 것까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두복 세부시행지침 작성 관련한 제안은 제가 작성한 건데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안건은 개인보다는 목운위 임원진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제가 작성을 했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시고 다음에 회의나 의장단이나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과 별개로 제가 제안한 토론 안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건지 말 건지를 우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7년 목운위에서 결의한 거잖아요. 사실 핑퐁 한 거죠. 떠넘긴 거예를 우리가 받아서 계속 할 건지. 저는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복희 1, 2, 3번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실래요.

설두복 전문의 개정을 포함한 쟁점사안으로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고.

지재욱 그거에 대해 논의가 되지 못한 사항이 뭐죠.

설두복 전문의 개정. 정관 전문을 개정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소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결국 못 했고, 창립정신, 교회갱신 것과 같은 혁신적인, 자세하게 가나 좀 혁신적인, 처음 정관이 제정될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뒤쳐져 있다. 좀 혁신적이어야 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 전면 개정인데, 지난번은 어쨌든 부분 개정이잖아요. 전면개정에 대한 소요가 있지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목운위에 올라와서 토론을 하다가 이미 성평등위원회라든 이런 것들이 공식 기구가 되어져 있는데 반영되지 않냐 이런 소요들이 나왔었습니다.

정경이 당회가 논의 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목운위에서 어쨌든 어디선가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처럼 정관 소위원회가 만약에 임기가 끝났다면 그런 소위원회에서 누군가 연구 집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때도 임은희 집사님이 정관소위원회 참여하셔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 게 생각이 나는데, 누군간 한쪽에서는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 이라던가 이런 연구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운석 지난 목운위에서 차기로 숙제를 넘겼으니까, 숙제를 해결을 해결되는데, 지난 목운위에 참석했던, 제가 정관소위원회 같이 일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합의가 안 됐어요. 지난번 분들이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은 지금 현재 향린의 조건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갖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의가 되지 못했던 미합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미합의 조항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 했던 분들이 합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하고 설두복 위원이 같이 들어가면 둘 사이에 합의 안 되는 분명한 조항들이 있거

든요. 이걸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검토 될 필요가 있고 이 걸 다중 전체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 미 정리사항 3가지하고, 교회내 시행세칙하고 4가지를 넘기고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을 금년 8월 정도까지 목운위에 보고를 해 주면 절차는 그렇거든요 목운위 보고를 마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각 신도회, 부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제직회나 여러 단위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는 데까지 아마 11월 정도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고려하면 다음 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 어떨까. 5월 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 8... 아 두 달 동안 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는데, 이걸을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만나서, 이미 큰 선에서 한 번 훑어봤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다음 달에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목회운영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거 너무 나가는 거 같아서.

김희현 원래 목운위 산하로 소위원회가 있었나요. (네) 그러면은 받는데 안은 지난번 정관소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한번 초동 모임을 한번만 해주시고 다음 번에 안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채운석 지난번 소위원회 위원은 저랑 설두복 두 분만 있는데...우리는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신동일 지난 소위원회가 임기 만료되어 해산은 되었지만 구두로 다음 목운위로 이관하자 했잖습니까? 가장 내용을 잘 아는 정관 소위원회가 임기는 끝났지만 모여서 제안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목운위에 넘겨주시는 게...

채운석 전년도 정관소위원 전체가? (네)

설두복 정관소위원회가 구두로 한 건 아니구요. 2017년 목회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겁니다. (그러면 따로 모임 필요 없이...) (그러면 자료로 이미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고민 한 것 중에 한가지가요. 목회운영위원회의 운용을 보면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것들에 당장 당장 대응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이 있고, 그 다음 교회 제정과 관련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좀 더 큰 틀로 보면 교회 전체적인 선교 방향에 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관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고민할 것이 아니다. 또 지난번 정관 연구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 임기 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제안된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가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처럼 이번 임기안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 즉 장기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면 여전히 지난 번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원의 문제죠. 인원의 임기가 계속 끝나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설치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로 5년 10년 쪽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입니다.

지재욱 목운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니라 별도로 ...

설두복 저는 기본적으로 정관관련 사안은 목운위 임무이기 때문에 목운위 산하에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재욱 산하기구이면서 위원은 목운위원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채운석 지난번에 정관소위원회는 목운위원들 가운데서 여섯 명인가를 선출했구요. 그리고 그 소위원회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외부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광태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김지수 집사님, 정상희 교우님 등을 모시고 10여 명이 같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신복희 이번에 제시하신 3번 성평등위원회 관련된 것은 정관 소위원회가 해당부서와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평등위원회서도 계속해서 이거 대책을 논의 하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면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은 논의 과정 중에서 다음 달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정관연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설명을 다음 달에 듣고 다음 달에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안과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 심의 안건

### <향린교회 홈페이지 개편계획> (선교부)

의장(선교부장) 당회 보고중에 있었던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선교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목운위에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함슬 교우님 같은 경우에는 전산전공 이시죠. (네) 꼭 전공 이어서 라기 보다는 청년 입장에서 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느낌, 개선점 이런 걸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슬 그냥 들어가기 싫습니다. 난잡하고 허접하고 뭐가 뭔지 정리도 안 되어 있

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하늘뜻 펴기한다고 자료 찾아 보려고 했는데도 찾는 게 힘들고. 홈페이지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고. 활용도가 낮고. (전달이 확실히 되네)

의장 지난 주일에 미디어선교위 회의할 때 교회에 계시면 같이 회의를 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조남원 교수님도 의견 주시겠어요.

조남원 UI적으로 불편한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옛날에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썼는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쓰는 해상도랑 핸드폰으로 쓰는 해상도로 달라서 처음에 만들 때 사이즈를 정하거든요. 반응형 웹이란 핸드폰으로, 핸드폰 종류도 여러 가지로 갤럭시, 아이폰, 컴퓨터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패드도 있고, 그거에 다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반응형 앱입니다.

의장 충분히 개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웃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이 향린 40년을 중심으로 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개편방안은 이런 내용도 업데이트 할거고요. 교회 연혁도 2012년도까지만 업데이트 돼 있고, 10대 뉴스로 주로 되어 있어서 교회연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자료검색을 어렵습니다. 메뉴개편도 할 것입니다. 게시판 열람권한을 차등부여할 거고요. 지난 17일 기획회의를 통해 제작사 쪽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제작사 이야기는 워킹 시간으로 40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교회 창립 주인 5월 13일에 맞춰서 오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는 그냥 둡니다. 박재라고 하는데요. 새 홈페이지에서 지금 쓰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예전홈페이지 자료들이 다 삭제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5월 13일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와 자료 공유를 비롯한 넘나들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기\_요약)

설두복 지난번에 게시판에 자유게시판, 내부 토론 게시판, 나눔 펴미 게시판, 홍보물 게시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부지 매각과 관련한 내용들 막 나오면서 교인 전용 게시판에 만들어 달라 요구하니까 교인 전용게시판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 토론 게시판이 없어졌어요. 내부 토론게시판이 최근 활용도는 떨어졌지만 그 이전에 상당한 내용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없어지지 않고 다른 처리가 됐을 거 같은데, 홈페이지가 정리 될 때 그 부분도 살려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그 의견 또한 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지금 있는 데이터를 이관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전략은?

의장 선별해서 이관한다. 입니다.

김진 그럼 선별을 누가 하는지

의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프레임워크를 정리하는 것은 제작 하시는 분께서

직접 하실 거고요. 교회 소개글이나 목회자 관련 글은 새로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진 과거 데이터는 안 가져 온다는 거죠 (네)

의장 100%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가져 온다는 겁니다.

김희현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동영상 있는데 10여년간 쌓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걸 다 갖고 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하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나머지는 문서들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김진 아카이프는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아카이프 그대로 갑니다.) 아카이프는 어드레스만 만드는 거죠.

의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어렵고, 지난 달 회의자료를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난달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좀 자세히 들어 있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 소통채널 목운위방에 올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대 홈페이지 개편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얼마고 개편비용이 얼마고.

의장 일단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사 로로브레인이라는 이 규정 집사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550만 원인가. 근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금액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거든요. 물론 더 저렴한 기존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공수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회의하면서 얘기를 했구요. 비용 협상을 했고요. 그랬을 때 250만원이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1년 유지관리는 제가 조건을 건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저희가 처음에 갖고 오지만, 더 기존에 자료에서 아카이프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웍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 생각하는 것과 구축한 모습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두 달 간은 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주년에 일환으로 5월 13에 짤하고 새로운 얼굴을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완성된 완성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틀을 갖고 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보완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책임에 대한 해태를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넣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관리비용을 따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현대 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계획과 일정 속에서 일 하시며 애스시는데 IT 하는 분들이 보면 이게 가능한 일과 일정일까 하는 의문이 딱 드는 일정과 비용과 업데이트도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건지 그렇다면 25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업체한테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려면 제대로 바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예산과 비용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가지고 여쭙본 거예요.

이동수 이거를 진행하시는 게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장 지금 이게 미디어선교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미디어 선교위원회라면 (위원 열거)

의장 실무자는 김균열 홍태영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이규성 집사님도 포함이 되나요.

의장 이규성 집사님은 미디어 선교위원회 위원으로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제작업체 로로브레인소속으로 저희랑 갑과 을의 관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수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김균열 집사라든지 김진 위원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전문가의 의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편 방안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몇 몇 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몇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지난주 후보에 올리기를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한 내용을 드렸고요. 개별연락을 통해서 참여하신 교우님이 이화실 교우님은 콘텐츠 구성에 관한 전문가이다 보니까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함슬 교우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기술적인 검토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저희 교인 중에 꼭 웹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미지를 좀 대표컬러를 선택한다든지 메뉴 구성에 있어서 박스라든지 어떤 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조언받고 싶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규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개편 하겠다는 니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개를 갖고 계신 거고요. 개인적인... 본인이 60년사 있어서 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비용 협상도 그런 부분이 고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백만원 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시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개월 걸리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시기적인 입장에서 65 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5월 13일이나 17일 시점에 개편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조시기에는 촉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지고 새로워진 일정을 정한다면 조금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만드는 것은 프레임과 이미지적으로 구축하고 그 후 한 달간에서 두 달간 공수가 많이 들고 목회실에 부탁할 게 많거든요.

그 내용은 지난 계획회의에서 이성환 목사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동수 5월 13일 꼭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목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희현 5월이 안 되면 6월 달에도 안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얼굴은 하고 나서 계속 수선의 나가더라도...

신동일 이게 4월 14일에 처음 기획회의를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글쎄 그러니까) 사실 1월부터 나왔는데 목운위에서 보고 한 번 하라고 그래서 나왔고. 계속 의논해 왔던 거고. 5월 13일에 베타 버전이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본론을 말씀드리면 개편 비용 2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조건과 계약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준공함이라 하면 오픈 하는 거, 5월 13일 준공이 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일 년간 유지 관리를 그 유지 관리를 하면 나현대 집사님이 우려했던 그런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보완작업을 계속 해 달라는 취지에서 넣은 문구고. 예산안을 쪽 봤을 때 현재 짜여져 있는 2018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내용이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마련했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당회 결정을 인가요, 역사 발간 준비 기금으로 사용목적을 전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가 60주년 사업으로 마련된 기금이었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교회 내 갈등이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65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당초 60주년 기금에서 전용된 역사발전 기금에서 250만원을 마련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설두복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미디어선교 예산에 1300만원이 책정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세목이 없다 보니까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차 있는 건가요.

의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김균열 위원과 논의를 했고요.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교회 미디어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 프로젝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백만 원, 백오십만 원 소요 될 텐데. 그런 예비 비용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집행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발생하는 노후장비 유지관리비를 그때 가서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설두복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도에 미디어선교위에서 선로 새로 까는 거 하고 믹서 교체 하는 거 하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미디어 선교위원회 비용에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그 소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 사용 원칙에서도, 이거는 전용이잖아요, 역사발전기금을 사용하려면 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싶지 않은 거고, 만약에 없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말들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동의회까지 가야 되니 복잡하고. 해서 가능한 선교비, 미디어선교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 사용원칙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그 내용을 수정안으로 주시면 그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토론을, 저는 꼭 역사발전준비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강한 의지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250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구요. 그래서 이 비용을 논의를 해주시되, 선교부서 제안한 것은 역사발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다음에 설두복집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2018년 예산에 있는 미디어선교비 예산에서 250만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설두복 만약에 이게 미디어 선교위원회 예산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 결 목운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아닌 거죠. 미디어 선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계약서는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아닌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역사발전기금에서 전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목운위 심의 사항인가요?

김희현 목운위, 당회가 동시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신복희 당회에서 역사발전준비기금에서 사용한 것을 당회에서는 동의를 하고 목운위로 넘긴 거잖아요.

설두복 아 당회에서 결의가 된건가요.

신복희 아 예, 예. 근데 예산에 관한 건은 목운위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장 당회에서 결의하셨나요? 논의과정을 잘 몰라서...

신복희 목운위에 넘기기로 하다. 그니까 당회에선 동의를 한 거죠. 만일에 목운위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채운석 저도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당회에서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김희현 당회에서 그 때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았었고요.

신복희 네, 액수는 정확하지 않았는데.

김희현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복희 '선교부에서 준비 중인 교회 홈페이지 개편안을 목운위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다.' 여기까지. 결의사항은 아니구요.

의장 역사발전기금에서 쓰겠다는 거는 그 당시에 논의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그게 있어야겠네요. 13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작년에 활용되었는지. (여유가 있는지)

채운석 집행일이 빨리되면 5월 13일 이잖습니까. (네) 차기 목운위 있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될 상황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디어선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선교위 입장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미디어선교위에서 집행한 거를 가집행이라 보고 추후 논의를 거쳐서 역사발간준비

기금에서 집행하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설두복 위원  
의 제기도 타당하기 때문에 우선 그걸 확인해 보고 하는 게.

의장 그럼 한가지 만 더 부연해서 논의를 바라는 게.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정에 보유가 되어있는데,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이 들어와야지  
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없어요.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4주 뒤까지 마련이 가능할지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동수 제정이 없다는 말씀은 교회에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예  
산은 있는데 집행할 돈이 없다.)

김진 그렇게 얘기하면 250만원을 전용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을 가능성  
이... (아니요.)

의장 기금은 따로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두복 기금은 통장에 돈이 있고, 예산은 종이에 숫자만 써 있는 거고.

김진 있는 돈을 먼저 쓰겠다는 얘기구나.

의장 일반예산으로 줄 돈은 없고 기금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그 말씀을...  
그것도 논의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수 어쨌든 기금에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결의를 해야 될 거잖아  
요. 임시로 빼 쓴다 하더라도. (그렇죠.)

김진 일단은 설집사가 얘기한 부분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에 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  
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 1,300만에서 가능하면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게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충당할건가 별도로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채운석 위원이 제시 해 주었던 미디어선교비에서 가집행하  
고 추후 미디어선교비 부족분이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논의  
한다. 이 내용인가요?

김희현 채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김진 가집행이 아니라 미디어선교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문  
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때가서 기금을 쓰든지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장 다시 정리해서 홈페이지 개편 비용은 미디어선교예산에서 사용하고, 추후에  
미디어선교 장비의 유지 관리 비용이 들 경우 그 비용마련을 위해서 추후 논  
의 하기로 하다. 이렇게 정리 해도 되겠습니까.

신복희 추후 얘기는 널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쵸) 미디어 선교비에서 쓰면 결  
의가 필요 없고. 본인 자체 예산에서 쓰는 거니까.

지재옥 근데 집행할 돈이 없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의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채운석 이 자리에 계신 목운위원들이 기도를...

지재옥 재정부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신동일 줄 돈이 없으면 받는 게 미뤄지는 겁니다.

이동수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갑과 을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웃음) 그게 안 된다면 연기하는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김진 그 건 지불조건에 대한 거니까. 오픈은 하고 협의되는 대로, 물론 그 게 갑질일 수도 있지만.

의장 그럼 기금건이 아니니까 의결 없이 미디어선교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사. 기타

의장 기타 안건으로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희 아까 말씀드렸던 목운위장님 복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유토론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수 이 내용은 당회가 잘 아시지 않나요.

의장 누가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동수 지난번에 저희가 오늘 목운위 때 다시 뿔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유가 있을테고 당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목회실이나.

김희현 사실 목회실에서 지난 보고 드린 이후에 진전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목회실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 하셨던 분들에 대한 전화를 드렸고 복귀하신 분들이 계신데. 강집사님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실에서 충분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의미있게 판단할 수 있는 변경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복희 3월에는 문자를 보내면 받으셨는데 4월에는 문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더 우리가 다음 달까지 좀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드리고 다시 나와 주실 것을 종용하는 것이 그 문제는 다음 달에 다시..

이동수 좋은 방법은 전화를 하면 안 받으니까 전화보다는 문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희 문자도 대답이 없으신데 계속해서 ...

손정아 강일국 집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그 분이 이렇게 할 때는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그래야 그 분이 돌아올 때 편안하게, 아예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의사를 이 정도 되면 받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지지난 주에 사실은 목포에 찾아 뵙고, 좀 뵈려고 했는데요. 약속 잡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경솔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학교로 연락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언짢아 하셨고, 그 뒤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목운위원장으로 복귀를 설

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목운위원장을 내려 놓은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목운위원장으로서는 중심을 잡아 주시고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당장 성가대를 비롯한 교회 여러 부분에서 많은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계속 기다리고 설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운위원장을 빨리 뽑는다면, 가정입니다만 뽑는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더 빨리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교회 복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일과 가능성이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접촉을 시도했고, 정기 통로는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목운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새로운 목운위원장을 선출해서 정상적인 목운위로 이끌어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임 목운위원장 선출을 제의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동수 지난 번에 저희가 다음에 선출하자고 했죠.

김진 네, 맞습니다.

이동수 그런데 오늘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더 여유를 갖고 무슨 방안 있어 가지고 오늘 안건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의장 그거는 정식 제안한 단위가 없었던 점이 있고요. 지난 주에 조은화 목사님과 논의를 했는데 이번 목운위에서 뽑을지 말지를 묻고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기 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지금 의사를 여쭙고 있습니다.

채운석 성가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내에서 가까운 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통화 가능 하신 분들이 연락을 드려서 이러저러 말씀을 하는데 목운위원장으로서는 복귀 가능성은 너무 낮아 보입니다. 현격하게. 그리고 본인에게 목운위원장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이 어찌면 교회를 조금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목운위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존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임을 의결하고 새로운 목운위원장은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동수 지금 오늘 선출 하는 거나, 5월 달에 선출하는 거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운위원장이 중요하고 오늘 참석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전체 목운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그리고 5월 달 목운위 처음 시작할 때 목운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24분이

네요. 많은 분이 참석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좋은 분을 뽑을 수 있으니까. 5월 달에 시작하면서 뽑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석도 많이 하고, 목운위원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재옥 오늘은 몇 분이 빠지신거죠. (6분 인가요.)

설두복(서기) 시작할 때 17분이었고 그 다음에 19분 늘었는데 한 분이 이석...

이동수 18분이네. 6분이 빠졌네요.

채운석 강일국 집사님 자체가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23명인데요. 23명 중에서 18분이 참석 하셨으면 기왕에 목운위 역사에서 목운위원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월하고 이달에 많이 참석하신 거 같습니다. 또 전월에 그런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재옥 전월에 참석 몇 명이에요.

채운석 전월에 제일 많이 참석했습니다.

의장 전월에는 3분 불참해서 21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목운위원장 선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운석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 그러면 찬반토론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 회의에서 목운위원장을 선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목운위에서 선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김진 오늘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목운위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이번 목운위에서 선출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더 이상의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

나현대 근데 그렇게 결의를 했었나요. 제 기억에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픈해 놓고 시간을 갖자 라고...

김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음 목운위에서 선출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찾아 봐 주시겠어요.

이동수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 결의를 하지는 않았죠.

김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운위원장인데 한 달이라도 더 늦게 가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선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저희가 오늘 선출하든 뭐하든 여러분이 원하시면 괜찮은데, 오늘 선출 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목운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 별로 없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가면 되는 건데, 생각에는 이게 목운위원장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한 번 경험이 있었으니까, 가능하면 2018년도 목운위원들이 많이 참석한 상태에서 목운위원장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지금 시점에 뽑는 거 하고 5월 달에 뽑는 거 하고, 오늘 뽑혔을 때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목운위원장의 역할이 특별하게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 게 없다면, 오늘 뽑으나 5월 달에 뽑으나 별 상

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목운위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4분 중에서 한 명이 빠지면 더욱 더 좋은 것이고. 23명이 다 오면 더욱 더 좋을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거죠.

신복희 저도 다음 달에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유는 뭐 장로님의 의견도 동의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아직, 누구를 할까 하는 깊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오늘 뽑으면 너무 당황 하지 않을까 해서 다음 달에 뽑는 것을 동의합니다.

설두복 지난달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결을 굳이 표결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목운위원회 복귀를 위한 설득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 하고 4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둔다. 다음회의에서 논의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동일 지금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운석 그래서 의견들을 서로 간에 냈고 이걸 뭐 의견을 계속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나현대 저희가 했던 거를 좀 존중해서 한 달 정도 생각해 보고 그 분이 목운위원이 뽑았는데도 두 달만에 그만 두셨잖아요. 저희가 어딘 분을 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운위원장을 뽑을 때 목운위원장이 교회 내용을 좀 잘 하시거나 회의를 운용하는 묘미도 좀 있으시거나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제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하게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목운위원장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교회에 득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기에 보시기에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분이 되었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공유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러면 제 당회원들 중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교회 내용도 잘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생각들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도 생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표결로 결정하시죠.

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명백히 대립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목운위원장을 선출할지 말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목운위원장을 선출하자를 찬성으로, 다음에 회의 5월 에 선출 하자를 반대로 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설두복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번 회의에서 선출 하자라는 게 먼저 동의 됐고요. 거

기에 대한 수정안으로 5월 시작과 동시에 하자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표결 하는 게 옳다...

의장 그러면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회의 개시 시 선출 하자가 수정안입니다. 이 것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반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5월 회의 개시 시에 목운위원장을 선출 하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해 주십시오. (18명 중 9명 찬성) “이번 회의에서 목운위원장을 선출 하자.” 거수 해 주십시오. (18명 중 5명 찬성)

**결의 : 5월 회의 개시 시에 목운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다.**

이동수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광고는,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목운위원들한테 광고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게끔. 어떤 분을 뽑으실 건가 생각도 해 보고 오시고.

의장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안건 있으신가요.

김진 먼저 번에 장로 선출 건에 대해서 회남에서 좀 얘기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올려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장로 선출 티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차에서 한 명이 과반이 넘어서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죠.

김희현 미리 당회에서 두 분을 뽑기로 했으면 한 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 해 가는 거죠.

김진 1, 2차에서 한 분이 선출 됐어요. 그러면 2분 말고 1분을 3차로 계속 넘기나요.

김희현 1차에서 됐으면 2차 투표를 1분만 놓고 하는 거죠.

설두복 그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김희현 2분을 뽑는다고 했을 때, 1차에서 한 분이 나오면 2차에서 어떻게 하는냐 그거죠.

김진 1차이든지 2차이든지. 어차피 처음에 1, 2차는 과반이잖아요. 어쨌든 1분이 선출 됐어요. (과반이 아닙니다. 3분의 2) 아 3분의 2로 1분이 선출이 되면 그거로 종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김희현 3분의 2로 선출이 되면 바로 종료가 되는 거지만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10% 이상 중에서 순위를 2배수를 가지고 2차 투표를 했습니다. 1명이 3분의 2가 되었을 때는 2배수로 해서 순위를 1, 2위를 10% 이상 범위

에서 1, 2위 2명을 두고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  
 김진 합리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1, 2차에서 3분의 2가 나오면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복희 아니요. 종료가 아니고요. 2명에 장로가 필요한데 1차에서 3분의 2 된 분이 1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은 된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2, 3위에 된 분을 2차 투표로 진행하죠.  
 채운석 신복희 장로님 해석 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 같아요. 당회가 그 기준을 정하거든요. 이번 장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신복희 그리고 여태까지 항상 3차 투표에 대해서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2차 투표나 3차 투표를 할까요 물어보고 했거든요.  
 채운석 교우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당회가 결정하더라도.

설두복 당회보고 중에 부지 매각 협약서 수정 보고는 회의록을 비공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해당 보고, 심의는 늘 비공개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회의 기록은 ‘협약서 13조, 14조에 대해서 보고하다.’ 이 정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채운석 보고하고 받다.

의장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으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아. 폐회선언 (16:33)

폐회동의와 제청, 전원 찬성으로 의장이 회의를 폐회를 선언하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 2018년 4월 정기목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1. 보고

### 1) 출석/헌금 보고

(단위: 명, 천원)

날짜	예배 출석 인원							헌금 합계	들녘교회 농산물/ 국악찬송	특별헌금	목적 헌금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교사	성인	합계				
3/25	1	1	17	12	22	198	251	8,002,300		남북나눔 223	
4/1	7	6	22	16	22	251	324	23,074,000		남북나눔 531	선교센터 1,000
4/8	향린공동체 현장예배										
	2	0	11	4	15	현장/ 139 교회/ 40	211	3,090,000	국악찬송/CD 15	남북나눔 30	
4/15	3	2	20	7	17	202	251	9,389,000		남북나눔 400	성서구입 320

### 2) 2018년 4월/5월 목회일정

월	주일	예 배 력	주 일	주 간
4	29	다섯째 주일	교우친교의 날 평신도/목사 공동하늘뜻펴기(장 동원, 조은화)	5/2 수요기도회 5/5 어린이날
5	6	여섯째 주일	어린이주일 각 부/위원회	
	13	일곱째 주일	아버지주일 5.18민중항쟁기념주일 창립65주년기념주일 카네이션달아드리기 각 신도회 월례회	
	20	성령강림 주일	성찬식/당회	5/22 석가탄신일
	27	첫째 주일	강남향린교회 24주년기념주일 목회운영위원회	5/29 다날 5월 모임

### 3) 교우 사항

- 새교우 : 김다솜(청신), 조서은(희청)
- 소 천 : 이계연 집사의 모친故진소임 권사(향년93세), 3월25일(일)  
정혜열 권사의 남편故이광수 목사(향년89세), 4월14일(토)

박이정(배기봉) 교우의 모친 故이옥선 님(향년96세), 4월20일(금)

- 출 산 : 이은솔 교우/한원탁 님, 아들 출산, 4월20일(금)

- 결 혼 : 송조은 교우/박희진 님, 4월14일(토)

#### 4) 기관 보고

##### 4)-1. 부서

##### ○ 교육부

##### 1. 3월 주요 실시사항

구 분	내 용	
교육부	1. 4/1 차민호 어린이부 전도사 휴가 2. 4/8어린이부-청소년부간 강단교류 시작 (4월 8일 시작,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정) 3. 4/18 교육부 임시모임-청소년부 운영 건 4. 4/29 봄 사랑방 : 유아부(어린이 대공원), 유치부(남산 한옥 마을)	
유아/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4/1 또 한번의 부활 부활주일 계란 꾸미기  4/8 연합예배/공동체 놀이 황주혁 어린이 생일잔치  4/15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성서 만들기  4/22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헌금을 해요 헌금 봉투 만들기  4/29 봄 사랑방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	- 교육주제 : 제1성서 이야기 - 예배 인도 : 황은진 선생님 - 15일 생일잔치 : 김현정 선생님 - 22일 황은진 선생님의 교사하늘뜻펴기 - 22일 1시~3시 엄마 책모임 “일일일책” 제1장 나는 이렇게 책을 만났다. - 29일 봄사랑방 ‘남산골 한옥마을’ - 성인예배 참석 : 15일-임은희, 22일-김현정 - 예배 1주 : 꿈의 사람 요셉 2주 : 강남향린교회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향린 공동체 현장 연합 예배 3주 :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4주 : 모세 이야기 5주 : 봄사랑방
어린이부	1일 : 봄맞이 전체사랑방(종로구 삼청동 삼청공원), 차민호 전도사 휴가(오사카 처가) 8일 : 향린공동체 현장연합예배(어린이부 연합-심우기 집사 선거사무실) 15일 : 강단교류(어린이부-청소년부), 세월호 추모 별만들기 22일 : 일반예배, 생일축하 29일 : 반별사랑방(장소미정, 22일 주일 장소확정)	
청소년부	4/1 부활절 특별예배(씨클예배), 부활절 달걀 꾸미기 & 나눔 4/8 현장예배(강남향린교회, 향린공동체 연합예배) 4/15 강단교류(하늘뜻펴기: 어린이부 차민호 전도사) 낮꿈 회의 및 친교모임	

	<p>4/22 교사 하늘뜻펴기(허학범 부장교사), 낮꿈 준비위 구성</p> <p>4/29 분반활동(중3, 고등부 - 성서 뒤집어 보기: 패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는 성서, 교재 검토 중 / 중1,2 - 향린 성서일과표에 따라 진행)</p> <p>※ 주요 공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주 수요일 4시30분, 교육부 모임</li> <li>- 분반활동: 중3, 고등부 또래를 남/여 반으로 나누어 패미니즘 시각으로 성서를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li> <li>- 낮꿈, 여름들살이 준비위 구성.</li> </ul>
--	----------------------------------------------------------------------------------------------------------------------------------------------------------------------------------------------------------------------------------------------------------------------------------------------------------------------------------

## 2. 5월 주요 예정

구 분	내 용	
교육부	<p>1. 5/13 교육부 간담회</p> <p>2. 청소년부 체육대회</p>	
유아/ 유치부	<p>1. 4/22 유아유치부 엄마책모임</p> <p>2. 4/29 봄 사랑방, 장소 '남산골 한옥 마을'</p>	
	유아부	유치부
	<p>5/6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화 새찬양 배우기</p> <p>5/13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 주기도문 활동1</p> <p>5/20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2 주기도문 활동2</p> <p>5/27 담임 목사님 하늘 뜻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주제 : 사랑</li> <li>- 예배 인도 : 김현정 선생님</li> <li>- 13일 김정원 목사님 하늘뜻펴기</li> <li>- 13일 교육부 간담회</li> <li>- 27일 김현정 선생님의 교사 하늘뜻펴기</li> <li>- 27일 엄마 책모임 예정 "일일일책" 제2장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li> <li>- 성인예배 참석 : 20일-황은진, 27일-임은희</li> <li>- 예배</li> <li>1주 :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li> <li>2주 : 엄마, 아빠 사랑해요</li> <li>3주 : 친구야 사랑해</li> <li>4주 :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십계명</li> </ul>
어린이부	<p>16일 : 어린이주일(산책, 공동식사-외식) , 김무진 선생님 복귀</p> <p>13일 : 일반예배, 교육부 간담회(교육부장, 고문장로, 각 부서장, 전도사, 목회실)</p> <p>20일 : 일반예배</p> <p>27일 : 일반예배, 생일축하</p>	
청소년부	<p>5/6 생일축하, 분반활동:</p> <p>중1,2(행10.44-48, 시98, 요일5.1-6, 요15.9-17)</p> <p>중3 (패미니즘 시각에서 성서 다시 보기)</p>	

	5/13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20 분반활동: 중1,2(행2.1-21,시104.24-34,35b,롬8.22-27, 요15.26-27:16. 4b 15) 중3 (페미니즘 시각에서 성서 다시 보기) 5/27 청소년부 체육대회
--	-------------------------------------------------------------------------------------------------------------------------------------------------

## ○ 봉사부

- ▶ 요청사항 : 주일 야외활동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식수 인원의 파악을 위해서 봉사부에 꼭 알려주시면 적당량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교우부

- ▶ 4월 활동 보고

1. 4월 1일 : 생강 김장
2. 4월 8일 : 향우실 예배 지원
3. 4월 15일 : 새교우 소개 게시판 활동
2. 4월 29일 : 교우부 행사 - 신도회 매칭 프로그램(청남, 장녀) 진행 예정

- ▶ 5월 활동 계획

1. 7월 예정인 교우부 행사 준비 - 전체 지역모임 회의

## ○ 사회부

- ▶ 4월 목운위 사회부 활동

- 3월 29일 : 목요촛불기도회참석
- 3월 30일 : 강남향린 강제철거 규탄 성금요일 연합예배
- 3월 31일 : 사순절 평화순례 기행 - 평택 쌍차, 목동 파인텍
- 4월 1일 : 강남향린 강제철거 규탄 부활절 연합예배
- 4월 4일 : 강남향린 강제철거 규탄기도회 - 경찰청앞
- 4월 5일 : 강남향린 강제철거 규탄목요촛불기도회 - 동부지법앞
- 4월 8일 : 강남향린 강제철고 규탄 향린공동체 연합예배
- 4월 10일 : 강남향린교회앞 기도소 천막 설치
- 4월 11일 - 20일 : 강남향린 교회앞 기도회및 기도소 지킴이 활동

\* 사드저지 현장기도소 설치 1주기 연합기도회

- 일시 : 4월 28일 오후 1시
- 서울 출발지 덕수궁앞 오전 9시 출발
- 주관 : 생평마당, 예수살기,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향린교회 사회부

## ○ 선교부

### 1. 활동 보고

- ▶ 2018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4월 1일)
- ▶ 선교부 학습모임 : “존 칼의 과정신학적 교회론” (4월 22일)
- ▶ 홈페이지 개편 실무회의 : (4월 15일) 미디어선교위원회, (4월 17일) 실무회의

### <미디어 선교위원회>

- 3월 31일 강남향린철거규탄기도회
- 4월 1일 강남향린철거규탄기도회
- 4월 3일 강남향린철거규탄 동부지법 기도회
- 4월 4일 강남향린철거규탄 경찰청 앞 수요기도회
- 4월 5일 강남향린철거규탄 목요촛불기도회
- 4월 8일 강남향린철거규탄 연합예배 및 현장기도회
- 4월 12일 강남향린철거규탄 목요촛불기도회
- 4월 19일 강남향린철거규탄 목요촛불기도회

### <생명환경위원회>

- ▶ 들녘교회 농산물 판매(계속)

### 2. 5월 계획

- ▶ 생명환경위원회 조직 활동 및 환경주일 기획회의
- ▶ 선교부 학습모임 (계속)
- ▶ 홈페이지 콘텐츠 작업지원(~5월 2주차), 홈페이지 오픈(5월 13일, 창립기념주일)

## ○ 관리부

- ▶ 5월 계획 : 향린수양관 봄맞이 대청소

## ○ 재정부

- ▶ 특이사항 없음

## ○ 예배부

- ▶ 특이사항 없음

## 4)-2 신도회

### ○ 새날청년회

1. 새청 4월 캠퍼스 심방 3회 (김정현, 김지원, 정세연)
2. 목회 심방 3회 (강민혁, 남원정, 임숨이, 이얼)
3. 새청 2시 배움마당(계속) “페미니즘과 인권”
4. 4·16 기억예배 참여

5. 강남향린교회 천막기도소 지킴이 (서가영, 김정현, 김예림)
6. 새청, 청신 연합활동 4월 22일 클라이밍 예정

▶ 5월 11일 ~ 12일 봄 들살이 예정 (향린수양관)

○ 청년신도회

- ▶ 4월 첫째주
  - 부활절 예배 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 예배 참여
- ▶ 4월 둘째주
  - 토요일 : 새청과 봄맞이 모임
  - 주일 : 강남향린교회 연합예배 참석 및 거리행진 참여
- ▶ 4월 셋째주
  - 세월호 추모 예배 참석
  - 18일(수) 강남향린 지킴이 참여
- ▶ 4월 넷째주
  - 예배 후, 새청과 친교 모임

○ 희년청년회

1. 4월 2주 연합예배 참여
  - 강남향린철거 규탄 향린공동체 연합예배 및 거리기도회 참여
2. 주일 점심식사모임 : 소식 나눔과 친교의 시간(4월 15일)

○ 청년남신도회

[월별 정기회의]

1. 향린소통의 날 : 4월 29일, 장녀신도회와 티타임을 갖기로 하다.
2. 신도회수련회 : 6월 9~10일, 무의도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3. 강남향린교회 투쟁-기도소 지킴이 : 현 상황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다.
4. 터전위 진행관련 현황을 공유하다.

○ 청년여신도회

1. 이명박 구속 축하 떡, 교인 맞이 때 돌림(3월 25일)
2. 3월 24일 노는언니모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 관람.  
'에르미타시박물관展,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3. 4월 1일 청여 독서모임 : 책 '세여자' 를 읽고 독서토록 진행
4. 4.3 제주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글을 1층 게시판에 게재함.
5. 4월 4일 수요일기도회 ; 청여+희녀 주관이었으나 강남향린 기습철거에 대한  
서울경찰청 규탄대회로 향린공동체가 함께 준비 및 참여.

6. 청여수련회 : 4월 14일~15일 개최 / 장소 : 향린수양관
7. 4월 22일 '이태환 장로 및 재개발 대책위 설명회' 실시
8. 4월 22일 담임목사님과의 만남 실시

#### ○ **희년남신도회**

1. 희남 수련회
  - 일정: 2018. 4. 28. ~ 4. 29.
  - 장소: 원주 치악산 인근 펜션

2. 이○○ 장로 관련 논의
  - 4. 22. 예배 직후

#### ○ **희년여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 **장년여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 **장년남신도회**

- ▶ 보고사항 없음

#### ○ **권사회**

1. 예배실과 향우실 안내위원으로 활동
2. 어려운 교우돕기 대상교우 선정에 대해 논의함

### 4) **목회실 보고**

#### - 4월 주요 실시사항

1. 회의
  - 1) 정기제직회: 4월1일(일), 예배직후, 3층 예배실
  - 2) 각 부/위원회: 4월1일(일), 제직회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3) 신도회 월례회: 4월15일(일), 예배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4) 당회: 4월15일(일), 오후1시30분, 목회실2
  - 5) 서울노회 114회 정기회: 4월17일(화), 오전9시30분, 공덕교회
  - 6) 목회운영위원회: 4월22일(일), 오후2시, 4층 식당
2. 예배/기도회
  - 1) 부활절 예배: 4월1일(일), 성찬식, 세례식(세례: 서가영/최현애), 칸타타, 부활절 헌금(주정헌금의 2배 이상)
  - 2)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4월1일(일), 오후3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 “예수, 쫓

겨난 사람으로 오시다.”

- 3) **강남향린교회 강제철거 규탄기도회**: 4월1일(일), 오후3시30분, 서울동부지방 법원 앞(예배 후 송파경찰서까지 행진)
- 4) **수요평화 거리기도회**: 4월4일(수), 저녁7시30분, 서대문경찰청, 주관(청여/회여)
- 5) **강남향린교회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향린공동체 현장연합예배**: 오전11시, 강남향린교회 앞
- 6) **세월호참사 4주기 기억예배**: 오후4시16분,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3. 각종 활동 및 기타

- 1) **어린이부 사랑방**: 4월1일(일), 삼청공원
- 2) **생강김장**: 4월1일(일), 예배 직후, 1층 향우실(주관: 교우부)
- 3) **예향국악선교**: 4월4일(수), 낮12시, 광화문 북측광장, NCKK 제주 4.3 기도회
- 4) **청년여신도회 수련회**: 4월14일(토)~15일(일), 향린수양관
- 5) **유아/유치부 엄마 책모임 “일일일책”**: 4월22일(일), 오후1시, 아띠제
- 6) **평화소모임**: 4월22일(일), 오후1시30분, 1층 향우실, “남북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강사: 강정구 교수)
- 7) **휴가**: 차민호 전도사, 3월31일(토)~4월1일(일)

## - 5월 목회일정 안내

### 1. 회의

- 1) 교회 갈등해소를 위한 연석회의: 4월29일(일), 오후3시30분, 장소(추후공지)
- 2) 각 부/위원회: 5월6일(일), 제직회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3) 신도회 월례회: 5월13일(일), 예배직후, 정해진 장소에서
- 4) 당회: 5월20일(일), 모든 일정마친 후, 목회실2
- 5) 목회운영위원회: 5월27일(일), 오후2시, 4층 식당

### 2. 예배/기도회

- 1) **수요기도회**: 5월2일(수), 저녁7시30분, 2층 어린이부실(주관: 청여)

### 3. 각종 활동 및 기타

- 1) **다날 4월모임**: 4월24일(화), 오전10시30분, 1층 향우실(세부사항 추후공지)
- 2)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추모기도회**: 4월26일(목), 저녁7시30분, 성공회 주교좌성당 프란시스코(시청역3번출구), 예향 특송
- 3) **성가대 수련회**: 4월28일(토)~29일(일), 향린수양관
- 4) **유아/유치부 봄 사랑방**: 4월29일(일), 어린이대공원(유아부)/남산골한옥마을(유치부)
- 5) **교우친교의 날**: 4월29일(일), 오후1시30분, 1층 향우실
- 6) **교육부 간담회**: 5월13일(일), 오후1시30분, 2층 어린이부실

- 7) 다날모임: 5월29일(화), 고궁나들이  
 8) 교우친교의 날: 5월 6/13일(일)

▶ 전파 사항 : 없음

#### 4)-4 당회

##### 1. 교우 돕기에 필요한 기금 마련 건

김○○교우의 긴급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하여 별도부지 매각대금의 이자 수입금 130여만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목회실에 위임하기로 하다.

##### 2. 창립65주년 기념주일 준비 건

1) 하늘 뜻 펴기: 이병일 목사(강남향린교회)

2) 조계연 집사 근속 감사:

- 1997년 1월 5일 성가대 지휘자로 부임하여 21년간 근속한 조계연 집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하다.

3) 홈페이지 개편 및 개편 비용에 관한 건

- 선교부에서 준비 중인 교회 홈페이지 개편 계획서를 목운위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다.

##### 3. 재개발대책위 관련 주요일지 발표 후 설명회를 포함한 향후 일정의 건

- 4월 22일 예배 후 원하는 신도회에 한해 설명회를 열기로 하다.

- 4월 29일 15시30분 교회 갈등 해소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기로 하다.

2014년 이후 재개발 문2제로 인한 교회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조속한 논의 정리를 위해 공동의회소집을 요청하는 당사자 이○○ 장로의 의견을 고려하여이 문제를 절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열기로 하다.

▶ 참가대상 ; 당회원, 협동장로, 초청목사, 각 신도회 회장, 사건일지 설명회 준비위원

##### 4. 5월 당회일정 변경의 건

- 5월 정기당회는 5월 13일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행사로 인해 5월 20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다.

##### 5. 출교 처리된 권○○씨의 교회출입 금지 요청의 건

- 성평등위에서 요청한 권○○씨의 교회출입 금지 요청에 대해 당회는 교회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해당 기관에 권씨가 출교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4)-5 제직회**

- ▶ 제직수련회가 6월 첫째주로 일정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4)-6 향린공동체협의회**

※ 보고자료 별첨(p.12 참조)

## 향린공동체 현장예배 평가 및 결산

일시 : 4월 12일 향린교회 목회실3

참석 : 김덕수, 이종민, 조은화

### 1. 현장예배의 시기와 사안

그 동안 평화 통일 이슈를 중심으로 현장예배가 진행되었으나 이번 현장예배는 강남향린교회의 이슈를 중심으로 자본에 의한 강제철거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다. 이를 통해서 향후 사회선교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현장예배에는 그 시기의 적절한 이슈를 선정하되, 여성, 성소수자,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다수가 집중하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는 현장을 선정하길 바란다.

### 2. 예배

1) 준비시간이 짧았으나 유기적으로 잘 조직하여 역할 분담이 되었다.

2) 헌금

헌금봉투를 준비해서 참여율이 높아진 것 같다. 이전의 현장예배 헌금에 비해 월등하게 참여가 좋았다. 앞으로 현장예배를 기획할 때 헌금봉투를 준비하고 개 교회에 소식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찬

성찬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향린교회 향우실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서 참여했는데 정작 현장예배의 성찬시간에 향우실에서는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현장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미디어를 통한 예배에도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4) 음향

소리는 컸으나 잡음이 있었고 좋은 퀄리티의 음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 3. 홍보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향후 현장예배를 기획할 때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좋겠다.

### 4. 식사

양이 많지 않았지만 질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고 전달과정도 원활해서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5. 2부 행진

1) 퍼포먼스

처음에 화형식 등 다소 폭력적인 퍼포먼스의 애기도 있었으나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역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자본과 권력에 대한 풍자를 함으로써 의도하는 바가 잘 전달된 것 같다. 세련된 방식이었다는 반응이다.

2) 버스이동

2부 행진하면서 버스로 이동하는 게 산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우들이 많았다.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고 스태프들이 역할 분담이 잘 조직되어 움직였으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휴식을 가질 여유가 있었을 것 같다. 버스를 이용한 행진이 기동성 면에서 참신하고 편한 방식이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집중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했다.

3) 행진 장소

세 군데를 가서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으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처음 장소 이후 많은 교우들이 이탈하였다. 경찰서와 법원은 지난 기도회 후에 갔었던 장소이고 대중에게 알리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롯데타워에 좀 더 집중해서 오랜 시간을 가졌으면 참여율도 높이고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6. 교육부

장소 섭외 등이 잘 이루어졌으나 진행이 원활하지는 못했다. 노트북이 작동 안 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 다음에 현장예배를 할 때 교육부 예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여 교육부서도 현장예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수입부

항목	금액(단위: 원)	비고
분담금	1,800,000	강남(30), 들꽃(30), 섬돌(50), 향린(70)
적립금	1,000,000	작년 현장예배
현금	3,795,600	41위안 환전 포함
<b>합계</b>	<b>6,595,600</b>	

◎ 지출부

항목	금액(단위: 원)	비고
예배비	52,200	전병, 헌금봉투
식비	1,045,500	현장, 향린향우실(계좌이체로영수증대체)
차량	1,092,000	차량4대이관복님(계좌이체), 촛불교회차량사용료및주유비(계좌이체)
음향	500,000	김성만님(현금지출)
연대발언 사례	200,000	조한정님, 전재숙님(현금지출)
교육부 간식	19,600	
2부 행진	270,200	현수막, 피켓팅, 봉투
강남향린투쟁기금	3,000,000	
옥바라지센터기금	400,000	
회의비	16,100	
<b>합계</b>	<b>6,595,600</b>	<b>(잔액 : 0원)</b>

## **마. 안건**

### **1. 토론 안건**

2017년 12월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공지한 '정관 개정 관련 계속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과 방안 마련 (설두복 목회운영위원)

### **2. 심의 안건**

**<향린교회 홈페이지 개편계획>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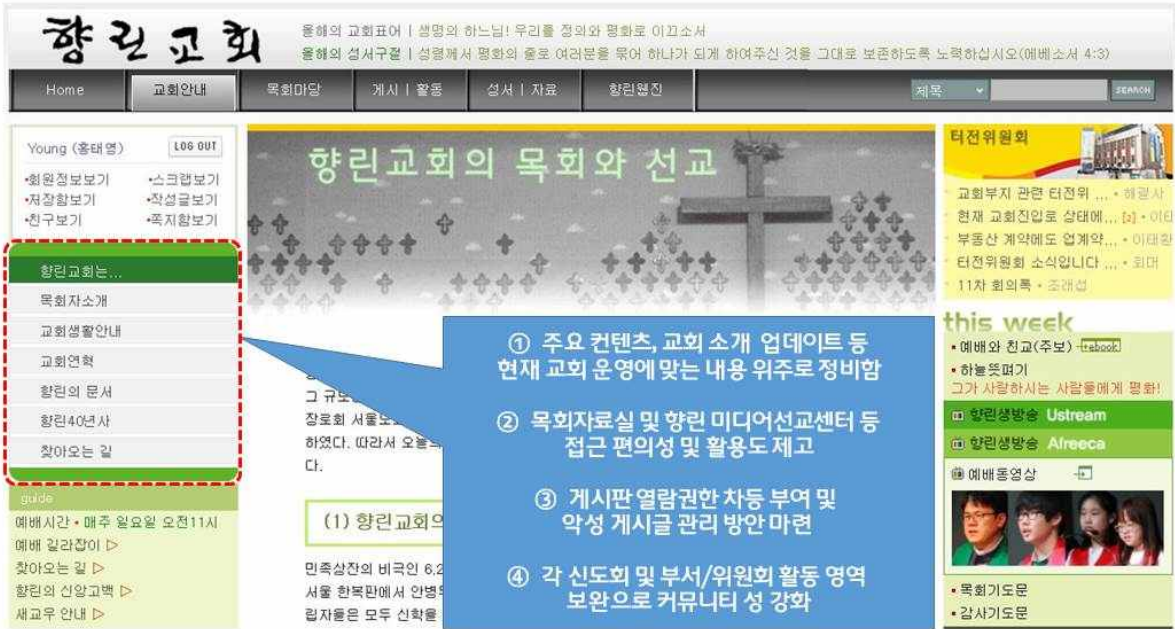
※ 심의자료 별첨(p.15 참조)

### **3. 기타 안건**

## **바. 마침 - “주기도문”**

## 별 첨 <향린교회 홈페이지 개편계획>

# 홈페이지 주요 개편 방안



① 주요 콘텐츠, 교회 소개 업데이트 등  
현재 교회 운영에 맞는 내용 위주로 정비함

② 목회자료실 및 향린 미디어선교센터 등  
접근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③ 게시판 열람권한 차등 부여 및  
악성 게시물 관리 방안 마련

④ 각 신도회 및 부서/위원회 활동 영역  
보완으로 커뮤니티 성 강화

## 향린교회

# 홈페이지 개편 계획

**1. 구축 일정**

- 4월 17일 기획 회의
- 4월 27일 서버 구축 및 기본 소스, 레이아웃 및 디자인 작업
- 5월 4일 주요 콘텐츠 이전 및 재작성 작업
- 5월 11일 검토 및 보완 작업
- 5월 13일 향린 홈페이지 3.0 오픈

**2. 고려 사항**

- ① 현재 일부만이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향린교회 60년사 작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를 재구조화하여 필요한 부분을 일반 회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
- ② 홈페이지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콘텐츠 작업을 해야 하는 ‘역사관’을 별도로 구축 필요
- ③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활동 등 온라인 선교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 확보

**3. 재원 마련**

- ①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1년)를 위한 사업 비용 250만원의 편성과 집행을 요청합니다.  
- 준공 후 대금지급 조건, 별도 계약서 작성
- ② 홈페이지 개편 비용 마련을 위해 특별기금 “역사발간 준비기금”의 사용을 요청합니다.

## 향린교회

■ 별 첨

## 회 의 록

제 목	3월 목회운영위원회	작성자	기록서기 설두복/ 서기 홍태영
일 시	2018. 03. 25.(일) 14:00 ~ 16:30	장 소	교회 4층 식당
참석자	<p>[당 회] 김명선, 신복희, 채운석 [제직회] 이동수          [신도회] 안정연(장여), 조재상(장남), 이정임(회여), 김진B(회남), 정경이(청여),          설두복(청남), 손정아(회청), 조남원(청신), 함 슬(새청)          [부 서] 신동일(관리)(불참), 나현대(교우), 지재욱(교육), 윤영애(봉사), 홍태영(선교),          윤선주(사회-대리참석 김진철), 강일국(예배)(불참), 백종수(재정)(불참)          [권사회] 이종남 [목회실] 김희현, 조은화</p>		
회의 내용	<p><input type="checkbox"/> 2월 회의록 채택          · 2월 회의록 수정(의결 정족수 및 결의사항) 및 1월 회의록 수정반영 요청(설두복 위원)</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          · 5월 첫째주 어린이 주일에 자매부서인 유아부-장녀, 유치부-장남/회녀, 어린이부 -청녀/청남,          청소년부-회남간 교류 방안을 4월 월례회를 통해 의논하여 좋은 아이디어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함 (지재욱 교육부장)</p> <p><input type="checkbox"/> 교우부          · 친교 도모를 위한 신도회 매칭프로그램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램 (나현대 교우부장)</p> <p><input type="checkbox"/> 청년여신도회          · 교회 매각과 이전 관련해서 청소년부 푸른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하다면          공동의회 등 교회 공식기구 논의 과정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정경이 위원)</p> <p><input type="checkbox"/> 416재단 발기인 및 기억위원 참여 현황          · 416재단 국민발기인 3명(김희현 목사, 김지수 집사, 정귀용 집사)과 416기억위원 126명          모집 및 현재 총 모금액 221만원으로 집계됨 (조은화 목사)</p> <p>■ 결의 사항</p> <p>1. ‘장로선출의 건’에 대해 회년남신도회에서 논의 후 의안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2. 기존 심의 통과한 ‘향린교회 토지 및 건물 매각안’ 수정 시 재심의 여부에 관한 건에 대하여          - 14조 비밀유지조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우리 교회에 적합한 개정이 되면 당회에 위임한다.          &lt;이상&gt;</p>		
비 고	- 회의록(전체) 공유 및 홈페이지 목회운영위원회 게시판 등재		